

■ 成正雄씨 (본부 사업부장).....

요즈음 처음 본 6 개월된 외손자金大寧 군

의 재롱에 세월가는 줄도 모른다고 병글 병글-. 그도 그럴것이 첫딸 영덕 양을 시집보내곤 못내 섭섭해 하던 표정이 이제는 흠뻑 만족한 모양.

■ 정순표씨 (충북지부 사무국장).....

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일찍 관내 아파트단지에 출장검진하는 검진반과 같이 생활하고자 연일 아침 8 시에 출근 한다.

■ 유창근씨 (충북지부 사업주임).....

사업추진차 관내를 동분서주한 결과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했으나 줄이지 못했던 체중이 4kg 빠졌다고 즐거운 비명.

■ 박광우씨 (본부 예산과장).....

박과장 등 기획부직원들은 87년도 예산, 5개년개발계획, 논문등 많은 업무를 야근까지 하면서 일괄처리하여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.

■ 김치수씨 (충남지부 사무국장)...

본부 홍보부에서 제작한 86년 견협카렌다를 관계사업장에 배포하면서 사업협의 중 여러곳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흐뭇해 했다.

■ 이종남씨 (본부 사업주임).....큰딸 이은정양이 2월18일 서울경기국민학교를 졸업 한다. 졸업 우수한 성적을 가져와 아버지로서의 가슴이 뿌듯했다고-. 다만 한가지 바람은 좋은 학교의 중학교 입학을 바랄 뿐이다.

■ 변성식씨 (본부 회계과).....총각인 변성식씨가 금년 5월경에 꽃다운 신부 杜以那양을 맞아 화축을 밝힌다.

평소 펜글씨 잘 쓰기로 이름난 변군(?)은 이제 새색시를 맞아 50kg(?)미만인 체중을 정상 체중으로 느리겠다고 단단히 버리고 있다. 처갓집에가 음식을 먹어보니 고루 영양있는 음식이라 영양보충과 체중 보완도 문제 없다고 은근히 신부감의 음식솜씨를 자랑하기도-

■ 이회봉씨 (본부 총무과장).....대구에 있는 장남 鉉澤군이 이번 3월달에 고등학교에 입학 한다. 아무쪼록 좋은 학교, 우수한 학교에 들어가길 바랄뿐이라고-. 더불어 큰 따님의 병리기사합격을 마음속으로 기원하기도-.

■ 이지선씨 (서울시지부 홍보관).....

이지선씨(29세)가 지난 2월 14일 오후 12시에 목화예식장에서 오랜 연애 시간을 청산하고 사업을 하는 김경렬씨(30세)와 화축을 밝혔다. 이지선씨는 처녀생활의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끝까지 자존심을 강조하기도-.

두사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마음속으로 축원 한다.